

배달 오토바이 무단 질주 시민 안전 위협

현장르포 **광주천 산책로 가보니**

요란한 경적소리에 아이들 쟁기느라 불안 민원 제기에 구청 모른체...대책 마련 시급

“자전거도로 입구에 주차된 차량들과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마음 놓고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합니다.”

광주 서구 동천동 광주천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 통행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등이 없다는 이유로 보행로를 질주해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제 낮 12시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

교회 앞 광주천변 산책로. 이곳은 주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를 타거나 가족단위로 산책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책로에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산책하는 시민들 사이로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스마트폰을 보고, 뛰어나는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기도 했다.

산책로를 걷던 시민들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에 발걸음을 멈추거나 피하게 급급했다



광주천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 배달 오토바이 등이 난폭·과속운전을 일삼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관할구정에는 최근 한달 사이 일대 오토바이 통행에 대한 민원이 5~6건 가량 접수됐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렇다 할 법적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과태료 발부 등의 단속은 커녕 단속을 하더라도 계

도에만 그치고 있다

천변 산책로를 매일 이용한다는 정모씨(35·여)는 “아이들과함께 산책을 나섰는데 산책로에 오토바이가 비집고 들어와 당황했다. 산책로에 이륜차가 들어오면 안되는 것이냐”며 “계다가

곳곳에서 담배를 피워대 아쩔수 없이 멀리 돌아서 일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단속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모씨(67)는 “주말에 자전거로 천변길을 다니며 운동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마구잡이로 도로갓길에 주차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기본 좋게 운동을 해보려다 기본만 상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구정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산책로 이용은 불법’이라며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부족의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주차단속의 경우 주중에는 매일 단속차량이 돌고 있다. 주말에는 구정에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태료 발부 등의 단속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5~18	흑산도	17~20
담양	15~18	구례	14~19
화순	15~19	곡성	14~19
영광	15~18	완도	18~21
함평	15~20	강진	16~21
무안	15~19	장흥	15~20
영암	16~20	해남	17~21
진도	17~22	고흥	15~21
신안	17~21	보성	14~19

일출 06:31 일몰 18:09
월출 14:49 월몰 00:08

목포	만조 08:23 21:38	여수	만조 03:52 17:41
	간조 02:27 14:08		간조 09:47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131

“내가 대한민국 검찰이다”

시민 1천여명 촛불대회

“내가 대한민국 검찰이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광주국민민주연대는 지난 5일 오후 6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대회’를 열었다.

이날 촛불대회에는 시·도민 1,200여명(추계 추산)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

손에 촛불과 깃발 등을 들고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검찰이 기득권과 결탁해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가 대한민국 검찰이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을 규탄

했다.

함평에서 올라온 심덕재씨(39)는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다”며 “비록 서울을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민주주의의 뿌리, 광주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다.

자유발언자로 나선 강주연 학생(23·여)은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적폐세력의 본거지다. 검찰개혁과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해체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찬 기자



5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인근 도로에서 열린 ‘광주시민 촛불대회’에 참석한 가정 검찰개혁·적폐 청산을 위한 광주시민행동과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술마시고 차량 잇따라 들이받아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2)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30분께 서구 치평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운전 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종찬 기자

교차로서 1t 트럭·오토바이 충돌

6일 낮 12시22분께 강진군 작천면 한 사거리에서 A씨(70)가 몰던 오토바이와 B씨(70)의 1t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와 A씨 손녀(9)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씨 모두 서로를 미처 발견 못해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수사 정보 누설 ‘뒷돈 쟁기’ 광주·전남 경찰 5명 기소

최근 3년 동안 광주·전남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쟁기 경찰관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유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국 경찰관 28명 가운데 5명이 광주·전남청 소속 경찰관이다.

이들은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청 소속 A경위는 지난 2017년 교통안전전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지

명수배자를 즉시 검거하지 않고, 수사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받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경위는 알고 지내던 식품업주에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과 증거물·참고인 경찰 진술 내용·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전남청 소속 C 경위는 관공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검사 수사 지휘서를 복사해주는 등 수사 방향에 대해 알려준 대가로 45만원을 받아 쟁겼다.

D·E경위는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광민 기자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간경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자, 셀레늄(S)
- 두뇌 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살게 결정과정, 올리고당



1 주문 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프 트러스트 www.ecdaymall.com | 문의 | 고객센터 080-8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서울 경기: 동부영양소 (02)552-4807, 동부영양소 (02)999-3382, 남부영양소 (02)551-4535, 강남영양소 (02)553-8888, 서부영양소 (02)294-2295, 연평영양소 (02)374-8911, 광명영양소 (02)374-8911, 용문영양소 (02)374-8911, 진주영양소 (02)374-8911, 부산영양소 (02)374-8911, 대구영양소 (02)374-8911, 대전영양소 (02)374-8911, 광주영양소 (02)374-8911, 전북영양소 (02)374-8911, 전남영양소 (02)374-8911, 충청영양소 (02)374-8911, 강원영양소 (02)374-8911, 제주영양소 (02)374-8911